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한국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가부장문화, 권위주의, 차별의식 등등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호주제의 폐지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자칭 B급 좌파라며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혐오를 주저없이 드러내는 진보인사들도 무의식 깊은 곳에 파리 틀고 있는 남성우월주의를 버리고 21세기는 양성평등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가끔 길을 가다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낫째 딸로 태어나 아들 딸 차별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차별에 예민하게 된 일, 군사독재 시절 사회학을 전공하다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두 차례 구속과 두 차례 제적을 겪으면서 공공선에 대해 남보다 더 많이 고민하게 된 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한의학을 공부하고, 한의사가 된 후 여전한 아들뱀침증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일,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생명은 우주가 피워낸 소중한 꽃이라는 점을 각성하게 된 일, 약사법 투쟁을 통해 컴퓨터통신을 배우게 된 일, 익명성이 보장되는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는 남성들의 폭력적 언설과 저급한 시민의식의 원인이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일... 이 모든 것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 지금까지의 내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 말이다.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빠졌더라도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내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역사의 현장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바로 그러한 고통은 역사의 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내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그 속에서 역사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 내 젊은 날, 긴급조치9호 철폐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행보



김영철\_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73 학번, 민주화추진협의회 전문위원, 한겨레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 시인·소설가(한)

아직도 독재자 살인자 친일파 박정희의 유신명령들이 활개치는 이 땅은 긴급조치9호에 이어 긴급조치10호가 발동이라도 된 듯하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권은 유신헌법이란 해괴한 괴물을 등장시켜 한반도를 감옥으로 만들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축수를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뒤집어 씌워 무참히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들의 역사적 반동은 언젠가 다시 과거사 청산의 한 장으로 남겨 두어야 할 일이다.

지난 1973년 나는 성적우수자로 선발되어 4년 간의 대학장학금을 받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다. 중앙대는 한강 이남이라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운동권 선배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이 속에 나는 <사상계>, <다리>, <창조> 등의 잡지와 외국의 혁명사 관련한 책들을 스스로 구해서 탐독하였다.

1학년 한 학기 동안 홀로 의식화 작업을 하면서 한반도를 감옥으로 만들고 온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박정희와 그 일파인 파쇼정권을 타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이런 나의 결심은 당시 같은 대학의 임종철(약학과, 시인) 선배와 수 차례의 시국정담 속에 다듬어졌으며, 임종철 형은 폭 넓은 역사 인식으로 나의 불확실한 지식들을 다듬어 준 논리정연한

이론기였다.

나는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조용히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교양학부에서 의협심이 강한 동지들을 불러 모았다. 나는 당시 교양학부의 수석합격자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다른 단과대학 여러 친구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사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각과 대표 30여 명을 친구의 조그만 하숙방으로 소집하여 각자 돌아가면서 정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게 했다. 예비 거사자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간 첫 거사도 못해보고 잡혀가게 생겼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서 소집책 의장 자격으로 말했다.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절대 발설하지 말자고 당부한 뒤 다음을 기약하고 해산하자고 했다. 일종의 연막전술인 셈이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헤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정확히 발언한 친구들만 따로 남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다음날 거사를 논의했다. 73년 2학기 어느날 중앙대학교에서의 유신철폐 첫 데모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다. 이날 밤 함께 의기투합된 동지들은 조순태(사북73), 김선(사북73), 김정배(사북73), 경영준(도서관73), 백봉렬(건축73), 이석준(철학73), 김기선(사학73) 등이다.

다음날 나는 일어나자마자 태극기를 옷 속에 넣고 첫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 이날 연설할 선언문을 아무도 눈에 띄이지 않게 화장실에 서서 외웠다. 거사의 시간이 다가오고 약속한 동지들이 하나둘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교양학부생들이 쓰는 건물로 올라가서 선동 연설을 하면서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건물 밖 의혈탑 쪽으로 몰고 갔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레 데모 행렬을 갖춰갔다.

나는 유신헌법 폐지, 박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연설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서너 차례 물어뜯어 붉은 피를 내고 준비한 하얀 한지 위에 혈서를 써내려 갔다.

“유신철폐, 민주승리”

이 유서 같은 혈서는 집에서 보관해 오다가 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될 때 증거로 압수된 걸로 기억한다.

우리 데모대는 중앙의 운동장을 아프리카 들판의 성난 코끼리떼처럼 무서운 기세로 돌았다. 정문 앞에서 경찰들과 몇 차례 투석전을 벌이다가 후문을 뚫고 나가 장승백이를 지나 노

량진 경찰서를 향해 진격했다. 나는 태극기를 앞세운 맨 선두에 서서 민주승리, 유신철폐를 외치면서 저들이 도로를 차단하고 만든 저지선을 향해 달려 나갔다. 경찰 저지선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나는 장렬히 최루탄을 맞고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있었으나 저들이 쏟아놓는 지랄탄으로 대열은 한순간에 흩어지고 말았다. 나는 한 동료의 팔에 끌려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부터 데모 주동 혐의로 수배자의 몸이 되어 경찰들을 피해 뒷골목으로 도망을 다녀야만 했다.

74년 2학년이 되어 노량진경찰서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면서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또다시 봄과 가을에 있는 두 차례의 교내 데모의 선두에 서게 되었고 다시 도피를 해야 했다. 이때부터 나는 살신구국론이라는 나만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 논리로 무장하게 된다. 살신구국론(殺身救國論)이란 살신성인(殺身成仁)이란 고사처럼 자신을 죽여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참으로 학생다운 순수한 발상의 발로였던 것이다.

나는 교내의 다양한 서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서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의 부당함을 역설하고 학내의 민주화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동아자유수호투쟁위원회 농성장을 격려 방문하였다.

이 당시 나는 학생 신분엔 걸맞지 않게 이름이 적힌 명함을 찍어 나눠 주었는데 명함의 뒷면에는 이런 구절을 써가지고 다녔다.

“진리(眞理)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正義)는 반드시 이를 날이 있다.”

75년 3학년이 된 나는 더이상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살신구국론으로 교내 강연회를 여는 등 전의를 불사르고 있었다. 그 무렵에 나는 삭발을 하여 나의 의지를 내외에 알렸다.

박정희가 긴급조치7호를 발동하던 날, 내가 회장으로 있던 중대 각과 수석합격자회인 용우회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거사는 바로 내일이오. 긴급조치7호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책임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저히 비밀에 붙이시오. 동지들, 박정희 독재정권을 박살냅시다.”

1975년 4월 9일, 마지막 데모 투쟁을 벌이면서 장렬히 전사하기로 다짐했다. 나와 데모를

주동하기로 모의한 이들은 나중에 군대로 끌려가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어떤 이들을 공무원인 형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어떤 이는 아버지가 세무시찰을 당해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했다고 들었다.

나의 동료학우들은 태극기를 각자 가슴에 품은 채 다음날 새벽같이 만나 각 단과 대학별로 정해진 시간에 선동을 시작하여 운동장 한자리에 데모군중을 끌어 모았다.

얼핏 봐도 수천 명은 됨직한 중앙대학교 사상 유례가 없는 데모 군중이 모였다. 나는 군중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의 참모동지가 앞장서서 일갈을 했다.

“중앙인 여러분! 오늘의 데모대를 탄생시킨 중앙이 낳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김영철 선생을 우리들의 비상총학생회장으로 이 자리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찬성하시면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일 학년 때부터 데모를 주동했기 때문에 나를 보기만 해도 데모를 떠올릴 지경이었던 많은 재학생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내주면서 연호했다.

“김영철! 김영철! 나와라! 나와라!”

나는 왼손과 왼팔의 팔꿈치까지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레닌 모자라고 알려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데모대의 맨 앞으로 걸어나갔다.

하얀 붕대를 칭칭 감은 왼손을 하늘 높이 흔들자 군중들의 연호가 사라졌다.

“나는 김영철입니다. 나를 비상총학생회장으로 호선하고 만장일치로 뽑아주신 것은 박정희 독재자와 그 파쇼세력을 혼내주라는 의미로 알고 수락하겠습니다. 한반도를 암흑으로 만들고 민중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독재세력들을 박살내고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긴급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듭시다. 여러분, 이 시각 이후에 벌어진 모든 민주화 투쟁의 책임은 비상총학생회장인 나 김영철에게 있으니 의혈 중앙인 여러분은 나를 믿고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반독재 반유신 투쟁의 데모대열로 하나가 됩시다. 자, 독재자들을 부수러 나가시다.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중앙인 학우 여러분!”

우리들은 유신헌법 철폐, 박정희 퇴진을 외치며 맹렬한 투석전을 전개했다. 연약한 여학생들도 최루가스에 눈물을 떨구면서 지칠 줄 모르고 예쁜 색상의 봄치마에 돌맹이를 담아 데모대에게 날라 주었다. 나의 동지학우들은 경찰이 무차별 쏘아대는 직격탄을 피해가면서 달려

나가기도 하고 돌맹이를 던지기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필사적인 투쟁을 계속 했다. 교정에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여 마치 포연이 쓸고 간 전쟁터 같았다. 오전부터 시작된 데모는 저녁 어스름이 질 때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이때 열심으로 앞장서서 투쟁하던 학우들이 장보순, 장석용, 연용순 등 용우회 회원들이었다. 아는 교수님들의 피신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동지들과 비상연락선을 만들어 놓은 후 학교의 담을 넘어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친구의 추천으로 주점이 많은 종로시내의 한 여관으로 피신했다.

한밤중에 임시검문이 나왔으나 여관 주인은 친구인 김원모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인지 여관 주인만이 아는 비밀 골방에 나를 피신시키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데모는 다음날도 계속되었고 데모 주동을 이유로 제적 처리되었다. 이때 함께 제적된 사람은 나와 1학년 때부터 데모주동을 함께 해오던 경영준(도서관 73)과 최경상(74, 강집후 군 의문사)이다.

나는 수배와 불심 검문이 많은 서울에 더이상 머물 수 없어서 박남식(정외과 73)의 소개로 장래영(사업)의 고향인 충남의 한 시골 마을로 도피해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했다. 서울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서울 촌놈이 질 줄도 모르는 지계를 지고 논두렁을 건너가 마을 샘물터에 미끄러져 두엄을 쏟기도 하고, 마을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머슴이 되라는 머슴신고 축복기도도 받았다. 40일쯤 지나 서울 집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형사들이 모두 철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경을 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세 명의 형사들에 의해 노량진 경찰서로 연행되고 말았다.

3년 동안 데모 주동을 했지만 처음 잡힌 것이라 나를 보러 오는 외근 형사들도 많았다. 형사들은 데모 주동은 김영철이 하고, 잡혀오기는 송기원(문창과, 소설가)이 단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신 곧바로 강제징집을 당했다.

75년 5월 20일경 국군통합병원에서 각 대학에서 데모를 주동하다가 강집된 여러 친구들을 만났다. 기억나는 이들은 김시형(연세대 73), 도천수(고려대 73), 염진섭(서울대 73), 장준희(송전대 73, 군 의문사), 김삼수(서울대 74) 등이다. 장준희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허약했음에도 강제 입영되어 무리한 군사훈련을 받다가 의문사를 당했다. 나중에 나

는 결혼을 앞둔 어느날, 나의 신부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그의 무덤을 찾아 꽃 한송이를 놓고 왔다.

이등병 때 포상휴가를 나왔으나 안정배(경제 73), 이석표(사복 73), 김기선(사학 73), 백상태(정의 73) 등 절친한 친구들은 모두 감옥에 가고 없었다. 나는 귀대하자마자 짚차에 실려 보안대로 끌려갔다. 포상휴가는 나를 탈영병으로 잡아가려던 음모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감시를 계속한다면 스스로 죽을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별관리 대상이었던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감시의 대상이었다. 절망적인 허탈감으로 몹시 힘든 군대 생활이었지만 송기원 형이 보내준 편지 한 장으로 위로를 받기도 했다.

너의 모든 것을 베혀라.  
너의 분노와 너의 가슴을 베혀라.  
너의 추억과 너의 삶을 베혀라.  
그리고 미래로 뚜벅뚜벅 걸어라.

78년 1월 만기제대한 나는 민청협(민주청년협의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당시 만났던 민주화투쟁의 쟁쟁한 선배동지로는 조성우, 양관수, 이신범, 최민화, 원혜영, 이해찬, 박계동 등이 있다. 민청협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던 그때, 나의 정신적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백기완 선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백범사상연구소에서 선생께 “백 선생님, 저는 독재자들과 싸우다 죽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한 일이 있다. 이때 백기완 선생은 인자하신 미소로 “잘 알겠네. 생명은 소중한 것이네. 기다리던 시기가 오면 내가 부르겠네”라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중일 때 백 선생님과 잠시 마주치게 되었는데 나는 간수들을 뿌리치고 달려가 인사를 드렸다.

78년 6월, 나는 서울 종로, 광화문 등지에서 있는 유신 반대, 긴급조치 철폐 시위에 민족문학작가회의 박영근 시인과 함께 섞여 있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이라고 강력 주장하여 극적으로 풀려났다.

79년 동대문성당(당시 고 김승훈 신부) 접거 농성 사건을 민청협 회장인 조성우, 부회장 양

관수, 이신범, 최민화 선배 등과 주도하고, 같은 해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고은, 임현영, 고 이문구, 송기원, 이시영, 이종욱, 이진행 선배 등과 세계시인대회장에 쳐들어가서 ‘언론자유보장’ ‘양심문인석방’ 등을 주장하다가 구류 15일을 받았다. 이 때문에 술자리에서 우스개소리로 민주계관시인이란 별칭까지 얻게 되었다. 이때 수도권경비사에서 차출된 무술유단자들 7, 8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과정에서 싸우탕을 했는데 목물령뺨와 코뼈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한동안 국물조차 넘기질 못했다.

경찰서 안에서 나보다 먼저 잡혀오신 시인을 만났는데 그 분이 문단의 원로이신 민영 시인이셨다. 그 분은 구속 문인의 석방을 주장하다 붙잡혀 오게 되었다. 나는 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음에도 송기원, 이종욱, 이시영, 이문구 등 문단의 한참 선배들과 함께 유치장에서 10일 간 갑갑한 시간을 보냈다.

79년 9월, 자식을 대학교에 보내 놓고 공부는 잘 하려나 지켜보시던 부모님이 운명하였다. 73년부터 계속된 나의 반유신운동으로 정보기관원들의 감시와 주위의 손가락질을 당하시다가 결국 화병을 얻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민주화의 기쁨을 누리보시지도 못하고 같은 날 운명하시고 말았다. 미처 장례 준비를 하지 못했던 나는 매우 당황하였다. 그러나 민주문화운동의 대부격인 정광섭(서울대 중문과) 형과 친구인 김시형(연세대 73)이 용미리 공동묘지에 묘터를 잡아주고 백기완 선생님과 임현영 선배님이 상가를 지켜주시면서 합장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다.

79년 10월 어느날 내가 존경하던 선배님들의 사진이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그즈음 도피생활을 하던 나는 형사대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한국민주투쟁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모진 고문과 구타, 욕설과 협박 끝에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낸 수사관들은 마치 독재자의 하수인으로서 큰 밥벌이를 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우리를 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꼭꼭 묶어서 지옥 속에 넣으려고 했다. 나는 독재를 독재라 하고 잘못된 헌법과 법률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무슨 잘못이 되는가 되물었다.

어느날 대방동 대공본실에 갇혀 있다가 배급해주는 화장지를 받아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고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 변기통 속에 누군가가 떨어뜨린 신문 일면의 쪼가리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누군가가 죽었음을 알리는 글자가 보였다. 누구일까? 나는 그자가

바로 독재자요, 살인자요, 친일매국노인 박정희라는 사실을 그로부터 한 주일이나 지나서 겨우 알게 되었다.

박정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나는 너무도 기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독재자 박정희는 죽었다.”

빛이라고는 들어오지도 않는 좁은 독방에 갇힌 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외쳐댔다. 일제에서 해방을 맞은 그날의 감격이 이랬을까 싶었다.

얼마 뒤 수사관들이 육중한 철창문을 덜컥 열어주었다. 그리고는 푸르른 잔디밭으로 나를 끌고 갔다. 다른 때와 다르게 그들은 인자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이 다음에 잘 되시면 우리들을 너무 나쁘게 생각지 마시오, 우리들도 다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는 건 직업상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다소 주눅이 든 수사관이 건내 준, 붉은 태양이 그려진 선 담배 한 개피에 불을 붙여 깊게 가슴 속까지 빨아 들였다. 저 멀리 잔디밭에도 함께 끌려와 혹독한 고문과 조작에 대해 조사를 받던 동지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들이 하나둘 보였다. 100일도 넘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골방에서 외출한 셈이다. 멀리서 모진 고문에 시달린 권오현(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선배님의 모습도 보인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태양, 푸르른 초록의 잔디, 자유롭게 날아가는 담배연기.

독재자 박정희는 김영철의 총탄이 아닌 김재규의 총탄에 급살을 맞아 가고 나는 독재자들이 만든 지옥에서 80년 5월 석방되었다. 그러나 비운의 한반도에 들이닥친 것은 총칼로 선량한 시민을 살육한 반동적 군사정권의 등장이었으며 학업을 포기한 채 계속된 나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은 87년 6월민주항쟁까지 이어졌다.



노 창 식\_ 한국신학 신학과 73학번, 신명교회 목사(현)

세월이 많이 흘렀다.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말이다. 세월의 힘이 참 강하다.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고, 사회의 모습도 엄청나게 변한 것이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우리 앞을 흐르던 강물은 정말 멀리멀리 흘러갔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을 흐르는 강물은 전혀 다른 강물이다. 그런데 예전의 그 강물, 지금은 바다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 어색한 느낌이 밀려든다.

서울 수유리에 소재한 한국신학대학은 매우 작은 대학이다. 전교생이 150명이 채 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민중신학을 비롯한 한국 진보신학의 산실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 서남동, 고 안병무, 문동환 등 민중신학을 개척한 분들이 모두 한국신학대학 출신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중신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민중현장에 투신하고 또한 정치현실에 뛰어들어 옥고를 치렀다. 고 장준하 선생과 고 문익환 목사, 박형규 목사 또한 이 대학 출신이다. 한국신학대학은 한국기독교교장로회(이하 기